

#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 인도네시아

Republic of Indonesia

2020년5월12일 | 책임조사역(G3) 이광준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동향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 일반개황

<b>면적</b> 1,905천 km <sup>2</sup> 	<b>인구</b> 2.7억 명 (2019 <sup>e</sup> ) 	<b>정치체제</b> 대통령중심제 	<b>대외정책</b> 비동맹중립 
<b>GDP</b> 1조 1,192억 달러 (2019) 	<b>1인당GDP</b> 4,219달러 (2019) 	<b>통화단위</b> Rupiah (IDR) 	<b>환율(U\$기준)</b> 14,147.7 (2019년 평균) 

- 적도에 위치하며 16,000개 이상의 섬으로 이루어진 동남아의 도서국 인도네시아는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내에서 최대 경제규모 및 최다 인구(세계 4위)를 보유한 나라로,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의 핵심전략국임.
- 인도네시아는 팜오일, 고무 등 농산물과 석유, 천연가스 및 기타 광물 등 부존자원이 풍부하며, 2.7억 명의 인구 중 절반 가량이 24세 이하로 향후 성장잠재력이 있음.
- 2004년 최초의 직선제 대선에서 평화적으로 정권이 교체된 이후 현재까지 민주주의 체제가 유지되고 있음. 2019년 4월 Joko Widodo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하면서 기존의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경제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

##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73. 9. 18 수교 (북한과는 1964. 4. 16)

**주요협정** 경제기술협력협정('71년), 임업협정('87년), 이중과세방지협정('89년), 항공협정('89년), 투자보장협정('94년), 문화협정('07년), 범죄인인도조약('07년), 원자력협정('11년), 형사사법공조조약('14년), 대외경제협력기금협정('17년)

##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구분	2017	2018	2019	주요품목
수출	8,403,680	8,833,195	7,650,051	석유제품, 철강판, 합성수지, 편직물, 반도체
수입	9,570,960	11,161,192	8,819,773	석탄, 천연가스, 의류, 목재류, 철강판

해외직접투자현황(2019년 말 누계, 총투자기준) 2,270건, 11,901,331천 달러

##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경제성장률	4.9	5.0	5.1	5.2	5.0
소비자물가상승률	6.4	3.5	3.8	3.3	2.8
재정수지/GDP	-2.6	-2.5	-2.5	-1.8	-1.6

자료: IMF, EIU

### 2019년 총투자 위축으로 경제성장세 다소 둔화

- 최근 5년간 GDP 대비 평균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한 총투자는 인도네시아 경제의 주된 성장동력 중 하나로, 2019년 GDP 대비 33.7%를 기록하였음. 그러나 2019년 4월 대선 및 10월 2기 내각 구성을 둘러싼 불확실성 지속과 팜오일, 석탄, 천연가스 등 주요 수출품의 국제가격 하락 영향으로 총투자 증가세가 둔화되었음.
- EIU에 따르면 2019년 고정투자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4.5%로 전년(6.7%) 대비 둔화되었고, 2019년 재고 투자는 전년도의 65.5% 수준으로 감소하였음.
- 한편, 2019년 GDP의 57.9%를 차지한 민간소비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인 5.2% 성장하고, 상품수입 감소에 따른 상품수지의 흑자 전환이 증가세 둔화를 일부 만회하여 2019년 전체 경제성장률은 5.0%를 기록하였음.

###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성장률 전망치 대폭 하향 조정

- 세계은행 등은 최근 수정된 경제전망에서 코로나19 확산과 그에 따른 각국의 이동 제한, 검역 강화 조치 시행에 따른 글로벌 경제 위축으로 2020년 인도네시아 경제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저치인 0.5~2.5%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2021년에는 2020년 중 코로나19 사태가 정리되는 것을 전제로 성장률이 반등하여 예년 수준 또는 그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위축이 빈곤율과 실업률의 급격한 상승으로 이어져 2020년 경제성장률을 0.4~2.3%로 예상하고 있으며, 2·3분기 중 역성장의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음.

< 각 기관별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 전망 >

(단위: %)

구분	세계은행	IMF	ADB	EIU	인도네시아 재무부
2020년	2.1	0.5	2.5	1.0	0.4~2.3
2021년	5.6	8.2	5.0	5.0	4.5~5.5

자료: 각 기관 발표자료

## 국내경제

### 경기부양을 위한 통화정책 완화 기조 지속

- 2019년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8%로 전년(3.3%) 대비 둔화되었음. 이는 경제성장 둔화 국면에서 국내 주택가격, 교통비, 에너지 가격 등의 상승세가 주춤한 결과로 분석됨.
-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중앙은행의 목표치인 2~4% 범위 내에서 관리되는 가운데 중앙은행은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2019년 중 총 4회(100bp) 인하하였고, 2020년에도 2차례(50bp) 인하하여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유지 중임(2020년 5월 현재 4.5%).
- 한편, 같은 기간 중앙은행은 1998년 이후 최저치(1달러당 16,000루피아)를 경신하며 불안정해진 루피아화 가치 방어에도 대응 중임. 이를 위해 미 연준과 600억 달러 규모의 달러화 스왑 계약 체결, 수출금융 지원, 중소기업 대출지원을 위한 준비금 요건 완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 2020년 초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 유지 및 루피아화 가치 방어를 위한 조치들은 2018년 루피아화 가치 폭락 시 중앙은행이 총 6회(175bp) 기준금리를 인상했던(4.25%→6%) 사례와 대조됨. 이는 중앙은행이 전례 없는 경제 전반의 충격을 완화시키는 데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향후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어 보임.

### 정부지출 확대로 재정수지 적자 확대 전망

- 2019년 재정수입은 소비세와 국영기업 수입 증가에 힘입어 GDP 대비 13.5%를 기록, 전년대비 비중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정지출 비중은 전년과 유사한 15.1%를 기록하면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이 전년 대비 개선되었음.

< 최근 인도네시아 재정수지 및 전망(GDP 대비) >

(단위: %)

	2018	2019	2020 <sup>f</sup>	2021 <sup>f</sup>
재정수입	13.1	13.5	11.4	11.5
재정지출	14.9	15.1	16.7	14.7
재정수지	-1.8	-1.6	-5.3	-3.2

자료: EIU

- 한편, IMF와 EIU는 2020년 코로나19 확산 및 그에 따른 정부 지출 확대로 2020년 재정수지 적자가 GDP 대비 -5%를 초과하여, 인도네시아 국가재정법에 명시된 재정적자 관리기준인 GDP 대비 -3% 수준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2020년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 대응을 위해 2022년 까지 한시적으로 국가재정법 상 관리기준 적용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 대외거래

###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경 상 수 지	-17,519	-16,952	-16,196	-30,633	-30,415
경상수지/GDP	-2.0	-1.8	-1.6	-2.9	-2.7
상 품 수 지	14,049	15,318	18,814	-228	3,513
상 품 수 출	149,124	144,470	168,883	180,725	168,460
상 품 수 입	135,076	129,152	150,069	180,953	164,947
외 환 보 유 액	100,626	110,931	124,143	114,776	122,707
총 외 채	310,730	320,966	354,352	378,723	411,552
총외채잔액/GDP	36.1	34.5	34.9	36.3	36.8
D.S.R.	12.5	14.8	11.9	8.8	9.9

자료: IMF, EIU

### 상품수지가 흑자 전환하였으나 경상수지 적자 지속

- 2019년 중 주요 수출품인 석탄, 원유, 팜오일의 국제가격 하락 및 글로벌 수요 감소로 상품 수출이 전년 대비 -6.8% 감소하였으나, 국내 투자 둔화로 인한 원자재 및 중간재 수입 수요 감소 및 정부의 에너지 수입대체 정책 시행으로 상품 수입액이 전년대비 -8.8%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상품수지가 흑자 전환하였음.
- 원유 순수입국인 인도네시아에서는 에너지 자원의 대외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2020년 1월부터 모든 차량과 기계류에 팜오일이 30% 포함된 바이오 혼합 디젤 사용이 의무화되었으며('B30'), 2018년 9월부터 국내에서 생산되는 원유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국내에 판매하는 조치가 시행 중임. 바이오 혼합 디젤 의무사용 비율은 향후 지속적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 한편, 외채 증가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 기타 대외 배당금 지급액 증가로 인한 소득수지 적자 악화(-337.7억 달러) 및 해외여행 증가 등에 따른 서비스수지 적자(-77.8억 달러)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경상수지 적자 만회 폭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남.

### 2020년 경상수지 적자 확대 전망

- 인도네시아는 만성적인 소득수지 및 서비스수지 적자로 인해 2012년부터 경상수지 적자를 지속하고 있음. IMF는 코로나19 사태의 전 세계적 여파로 상품수지 흑자 유지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2020년의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을 -3.2%로 전망하였음.

## 외채상환능력

### 양호한 외환보유액 규모 유지 중

- 외환보유액은 2017년 역대 최고치인 1,241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2018년 하반기 루피아화 가치 방어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sup>1)</sup>에 따라 1,148억 달러로 전년대비 7.5% 감소하였으나, 2019년에는 FDI 유입액 증가\* 등에 힘입어 1,227억 달러 수준을 회복하였음.
- 외환보유액은 상대적인 기준으로도 양호한 수준을 기록 중임. 2019년 말 기준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 외채잔액 비중\*\*은 단기외채 증가로 42.1%를 기록하여 전년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나, 월평균수입액 대비 외환보유액\*\*\*은 2019년 수입액 감소에 힘입어 6개월분으로 전년(5.3개월분) 대비 증가하였음.

\* FDI 순유입액(억 달러) : 205.2('17) → 189.1('18) → 244.4('19)

\*\*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잔액(%) : 32.7('17) → 40.6('18) → 42.1('19)

\*\*\* 외환보유액/월평균수입액(개월) : 6.76('17) → 5.34('18) → 6.00('19)

- 한편, 2020년 중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투자자금 유출 등으로 외환보유액 감소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 경제규모 대비 외채비중은 양호한 편이나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이 다소 높음

- 2019년 총외채잔액은 GDP 대비 비중이 전년대비 유사한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총수출 대비로는 상승하여 200%에 육박하였음. 2020년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수출 감소가 외채 관련 지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됨.

\* 총외채잔액/GDP(%) : 34.9('17) → 36.3('18) → 36.8('19)

\*\* 총외채잔액/총수출(%) : 177.4('17) → 171.2('18) → 198.4('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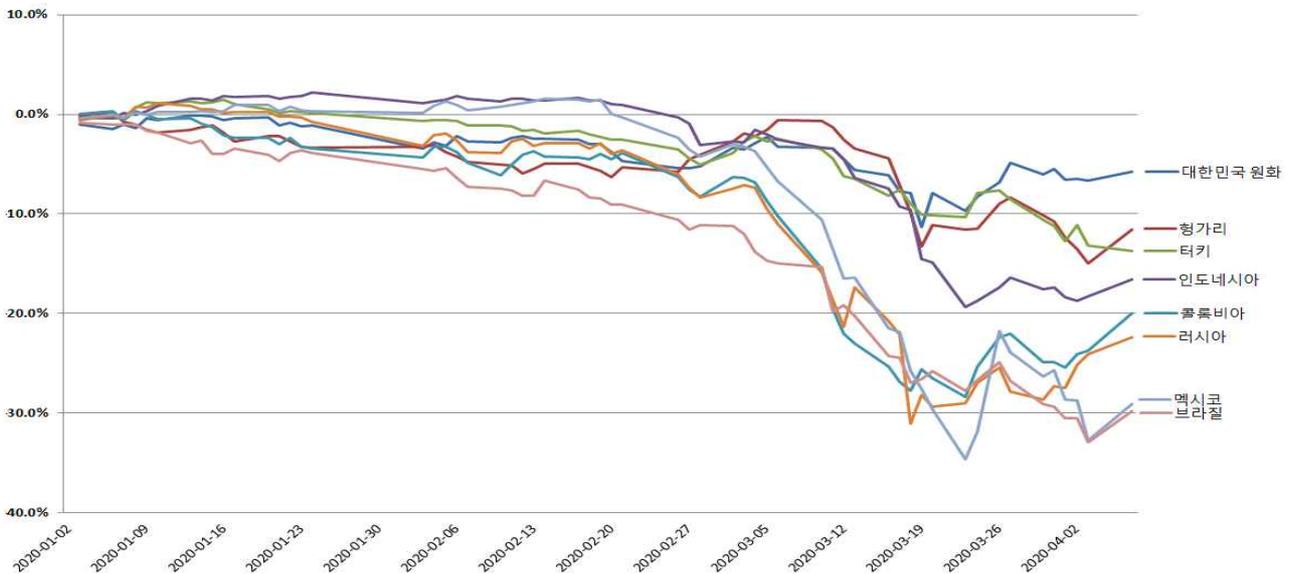
1) 인도네시아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2018년 중 루피아화 가치 방어를 위해 소모한 외환보유액이 71억 달러(2018년 전체 외환보유액의 6.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구조적취약성

### 대외변수에 의한 루피아화 통화가치 불안 지속

- 2020년 초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에 따른 실물 부문의 위축이 금융 부문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다수의 신흥국에서는 대규모 자본 유출로 인한 통화가치 하락 및 외환보유액 감소 추세가 뚜렷해졌음.
- 최근의 신흥국 통화가치 변동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경기 위축 우려에 사우디아라비아-러시아 간의 원유 감산 협의 결렬 이슈가 맞물리면서 브라질, 멕시코,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 중심으로 급락 양상을 보였음.

2020년 주요 신흥국 통화의 연초 대비 통화가치 변동률(%)



자료: Bloomberg

- 인도네시아는 국제 원유 공급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으며 원유 순수입국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외환보유액의 급격한 감소 및 통화가치 불안 양상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지고 있음. 이는 글로벌 투자심리 위축에 따른 여파로, 인도네시아 경제의 대외적 취약성이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음.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에 따르면 3월말 기준 외환보유액(중앙은행 보유 금, SDR 등 포함)은 1,210억 달러로, 2월 말 대비 7%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인도네시아 외환보유액은 2018년 9월 1,148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점진적인 증가 추세를 이어 오다 최근 급격히 감소하였음.
- 인도네시아 루피아화 가치는 1998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13년과 2018년의 글로벌 유동성 축소 기조 확산 때마다 역대 최저치를 경신해 왔음. 2020년 4월 초 달러화 대비 루피아 환율은 16,000루피아를 초과하였으며, 루피아화 약세가 연말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임.

### 근본적인 경제적 체질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

- 인도네시아 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 추진, 인도네시아 중앙은행-미 연준 간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왑 체결 등 정책 대응은 고무적이나, 보다 근본적으로 인도네시아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외국인 투자환경을 과감히 개선하여 대외적 변수의 영향을 덜 받는 구조를 갖출 필요성이 있음.

## 성장잠재력

### 자원이 풍부한 젊은 인구대국

- 인도네시아는 팜오일, 고무, 카카오, 커피 등의 글로벌 주요 생산국으로 농산물 자원이 풍부함. 또한 산유국으로서 정유개발 마스터플랜을 통해 원유 생산능력 확충 및 정유설비 고도화를 꾀하여 2018년 일평균 81만 배럴 수준이었던 생산수준을 2026년 200만 배럴까지 증대시키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음.
- 또한,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인 인도네시아는 2.7억 명의 인구가 거대한 내수시장을 형성하는 한편, 인구의 절반 가량이 24세 이하여서 노동집약적 산업을 발전시키기 유리한 상황임.

## 정책성과

### 경제성장세 둔화 우려 속 인프라 확충 정책 지속 전망

- 대규모 인프라 확충을 내세웠던 조코위 행정부는 첫 임기 중 총연장 3,400km에 이르는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신공항 10개, 신항만 19개, 댐 17개를 건설하였음. 또한 인도네시아 최초의 지하철(MRT)이 2019년 4월 자카르타에서 개통되었으며, 총연장 142.3km의 자카르타-반둥 간 고속철이 2021년 완공을 앞두고 있음.
- 대규모 투자를 바탕으로 집권 1기의 경제성장세를 기록해 온 조코위 행정부는 집권 2기에도 역시 경제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인프라 확충 기조를 이어 갈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2019년 경제성장률은 5.0%로 2015년 4.88%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여전히 부족한 인프라, 취약한 제조업 기반이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음. 또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보건 및 위생, 기업지원 관련 재정지출 확대에 인프라 확충 추세는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대규모 부양정책 추진

- 인도네시아 정부는 코로나19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고자, 총 438조 3천억 루피아(약 35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하였음.
- 동 부양책을 통해 법인세율의 단계적 인하, 대출 관련 규제 완화 및 영세기업 지원에 총 220조 1천억 루피아(약 17조 원), 빈곤 가정 보조금 대상 확대와 구직자 지원 프로그램 실시 및 저소득층 전기료 인하 등 사회보장에 110조 루피아(약 8.5조 원), 코로나 검사 키트 및 인공 호흡기 조달 등 보건 분야에 75조 루피아(약 6조 원)가 지원될 예정임.
- 또한 상기 정책의 재원 조달을 위해 450조 루피아(약 34조 원) 규모의 '팬데믹 채권'을 발행할 예정임.

## 정치동향

### 조코위 대통령의 연임으로 정치적 안정성 지속 전망

- 2019년 4월 17일 대통령 선거에서 조코위 현 대통령이 55.5%의 득표율을 기록하여 예상대로 재선에 성공하였음. 조코위 대통령은 2019년 10월 공식 취임사에서 지속적 인프라 확충, 규제 개혁, 인적자원 개발 등을 강조하였고, 이에 따라 집권 2기에는 기존의 정책 기조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보다 구체적인 성과 도출에 정부의 역량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됨.

### 2기 내각 구성 관련 엇갈린 평가 존재

- 2019년 10월 발표된 2기 내각 구성에서 지난 대선의 경쟁 후보이자 정치적 숙적인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인도네시아 운동당 총재가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되고, 3~40대의 젊은 기업인이 장관으로 발탁된 점에서 일단 협치와 파격의 인선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부각됨.
- 반면, 부정적인 시각에서는 총 34명의 장관 중 26명이 교체된 이번 개각에서 정치인 출신 장관 16명이 여야 7개 당에서 나눠먹기 식으로 등용되었고, 그 결과 향후 정책 추진이 전문성보다는 오히려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좌우되는, 타협의 내각 또는 '가도 가도'(Gado Gado, 인도네시아식 샐러드) 내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음.
- 프라보워 총재의 국방부 장관 기용을 정치적 화해로 평가하기에 앞서 그가 군인 시절 민간인 탄압 전력이 있어 문민정부인 현 정권과 맞지 않고, 대선 결과에도 2회 연속 불복하여 전국적인 유혈시위를 초래하는 등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장본인이라는 점에서 적절성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상황임.
- 또한 인도네시아판 우버이자 유니콘 기업인 고젝(Gojek)의 창업자이자 최고 경영자인 나딤 마카림(35세)이 교육부 장관에 기용된 점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 기반 경제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으로 평가되나, 한편으로 교육과 무관한 분야의 전문가를 교육부 장관에 앉혔다는 비판이 제기됨.

### 이슬람 지도자 출신 마루프 아민의 부통령 취임으로 사회정책의 보수화 우려

- 조코위 대통령은 재선 승리를 위해 자신의 개혁적 성향과는 거리가 있는 마루프 아민 인도네시아 이슬람 지도자 협회장을 부통령으로 지명하였음. 조코위 대통령은 본인의 최측근이 2017년 정치적으로 몰락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마루프 아민과의 전략적 연대로 무슬림 중도 보수 세력의 지지를 이끌어 냈고, 이를 바탕으로 대선에서 승리한 것으로 분석됨.
- 무슬림이 전체 인구의 87%를 차지하는 인도네시아에서 이슬람교에 대한 태도는 선거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쳐 왔음. 대표적인 예로 조코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중국계 기독교인인 바수키 차하야 푸르나마 자카르타 주지사가 70%대의 압도적인 지지율을 기록하다 2016년 10월 이슬람 신성 모독죄로 몰려 기소당한 이후 2017년 4월 주지사 연임에 실패하고 이후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음.
- EIU는 보고서에서 마루프 아민의 부통령 취임으로 인도네시아 사회 전반의 종교적인 보수성이 두드러져 왔으며 향후 사회 정책이 보수화될 것을 우려하였음.

## 사회동향

### 파푸아 지역에서 2019년 인종차별에 반발한 폭동 발생

- 2019년 8월 파푸아 섬 출신 대학생 43명이 인도네시아 국가 훼손 혐의로 체포되고 이들에 대한 모욕이 담긴 동영상도 유포되자 파푸아 지역 곳곳에서 멜라네시아계 민족인 파푸아 인들에 대한 인도네시아 사회의 인종차별에 반발하는 소요 사태가 발생하였고, 수도 자카르타 시내에서도 시위가 발발, 폭동으로 비화되어, 최소 30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 조코위 대통령은 사태의 봉합을 위해 직접 파푸아 지역 고속도로(트랜스 파푸아) 건설 현장을 방문하고, 파푸아 지역에 대통령 별궁 건설을 약속하는 등 화해 제스처를 보였음

### 부패방지법과 형법 개정 관련 대규모 대학생 소요사태 발생

- 2019년 9월 17일 국회를 통과한 부패방지위원회(KPK)법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대학생 수만 명이 인도네시아 주요 도시에서 시위에 참가해 수백 명이 부상을 당했음. 동 개정안은 부패 관련 수사를 전담하는 독립 기관이었던 부패방지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약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 개정안에 따르면 부패방지위원회는 행정부 소속 기관으로 전환되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5인으로 구성된 별도 위원회의 관리 감독을 받게 됨. 이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의 독립성이 상당 부분 저해되어 유명 무실해질 뿐만 아니라, 부패 척결을 열망해 온 다수 국민들의 지지도 철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 조코위 대통령은 부패방지위원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악화 일로의 여론을 의식해 법안에 정식 서명하지 않았음. 그러나 의회를 통과한 법률은 대통령의 서명 없이도 30일 이후 법으로 인정된다는 인도네시아 헌법에 의거하여, 개정안은 2019년 10월 17일 발효되었음.
- 또한, 비슷한 시기인 2019년 9월 혼외정사, 여성의 늦은 밤 외출, 대통령 및 정부 모욕을 처벌하는 등 국민의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독소 조항이 담긴 형법 개정안의 표결도 국회에서 추진되면서 시위가 더욱 격화되었음.
- 형법 개정안은 상당수 조항이 샤리아(이슬람 관습법)을 그대로 차용해 오면서 심각한 반발을 초래 하였음. 개정안 표결은 조코위 대통령의 연기 요청으로 2019년 9월 중단되었지만 2020년 회기 중 우선 검토 대상 목록에 포함되어 있어, 향후 추가적인 소요 사태 및 사회적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역사상 최초의 문민정부 첫 임기 말에 발생한 일련의 대규모 소요 사태와 그에 대한 정부 및 정치권의 대응은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가 아직 형식적 수준에 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분석됨. 향후 이러한 흐름이 보수적인 이슬람주의자인 부통령의 입각에 따른 사회 전반의 권위주의, 보수화 경향과 맞물려 결국 민주주의의 퇴행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염려되는 상황임.

## 국제관계

### 실리주의에 입각한 국제협력 강화

- 2019년 11월 한국과 협상 7년여 만에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타결되었고, 2020년 중 양국 국회의 비준을 앞두고 있음.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 기업의 투자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설, 의료 부문 등 시장을 추가로 개방하며 수도 이전 사업에 한국의 참여를 부탁하였음. 현대자동차는 2030년까지 인도네시아에 15억 4,000만 달러(약 1조 8,500억 원) 규모의 현지 생산기지 투자 계획을 발표하였음.
-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보르네오 섬 인근 나투나 제도 관련 영토 분쟁이 지속되고 있으며, 2019년 대선 당시 인도네시아 거주 화교에 대한 거부감이 표출되는 등 양국 간 긴장이 존재해 왔음. 다른 한편으로 인도네시아는 2019년 상반기 중 에너지, 수송 분야 위주의 30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일대일로 프로젝트 계약을 맺는 등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에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음.
- 총 사업규모 55억 달러(약 6조 6천억 원), 총길이 142.3km의 자카르타-반둥 고속철은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일대일로 프로젝트로, 2021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아울러 인도네시아는 한·중·일 등 16개국<sup>2)</sup>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을 통한 다자 무역 협력 확대를 추진 중임. 최종 타결 시 세계 인구의 절반, GDP의 3분의 1, 교역량의 30%를 차지하는 거대 블록을 형성하게 되는 RCEP은 2019년 11월 인도를 제외한 15개국간 협정문 협상이 마무리된 상태이고, 2020년 최종 타결 및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한편, 2019년 협정문 협상에서 빠진 인도의 참여 여부 및 시장개방 관련 추가 협상이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2020년 중 최종 서명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었음.

2) ASEAN 10개국 및 중국, 일본, 한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 16개국으로 구성

## 외채상환태도

### IMF 구제금융 지원액 조기상환

- 인도네시아는 과거 IMF 구제금융을 받은 경험이 있으나, 2006년 IMF 차관을 조기상환하였음.
- 2002년 67억 달러, 2005년 26억 달러에 대한 채무재조정을 받은 바 있으며,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발생으로 IMF의 지원을 받았으나 경제여건 개선과 외환보유액 증가로 2006년 조기상환하였음.

### 낮은 비중의 연체이력이 존재하나 감소세이며, 채무상환태도 양호

- 2019년 말 기준 인도네시아에 대한 OECD 회원국 ECA 총 지원잔액은 180.6억 달러(단기 32.7억 달러, 중장기 147.9억 달러)임. 이 가운데 연체금액은 중장기 지원 중 3억 달러(중장기 잔액의 2.0%)이고 감소세이며, 단기 지원액 중 연체액은 없음.
- \* 연체이력(억 달러) : 6.9('17) → 4.6('18) → 3.0('19)
- 또한 채무재조정(기준일: 1997년 7월 1일) 이후의 원리금 기일 도래분이 안정적으로 상환되고 있음.

## 국제시장평가

###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당 행	C1 (2020.04)	C1 (2019.03)
OECD	3등급 (2019.06)	3등급 (2018.06)
Moody's	Baa2 (2018.04)	Baa3 (2017.02)
Fitch	BBB (2017.12)	BBB- (2016.12)

### 점진적 등급 상향 이후 조정 가능성

- S&P는 2019년 5월 조코위 대통령의 연임 확정 및 구조개혁 지속 전망 등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의 신용등급을 1등급 상향 조정한 이후 현재까지 유지 중이나, 2020년 4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 재정부담 심화, 루피아화 약세 지속 우려로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변경하였음.
- OECD는 2012년 인도네시아의 신용 등급을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향 조정한 이후 2020년 4월 현재 까지 유지 중임.

- 인도네시아는 2019년 총투자 둔화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이 전년 대비 소폭 둔화된 5.0%를 기록하였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역대 최저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 인도네시아는 외환보유액과 외채규모가 양호한 편이고, 팜오일 등 농산물의 주요 수출국이며, 젊은 인구 구성을 바탕으로 향후 성장잠재력이 있음. 그러나 구조적으로 대외변수에 취약하며, 2020년 중에도 급격한 투자자금 유출로 통화가치 하락, 대외채무 증가, 외환보유액 감소 등이 우려되고 있음.
- 조코위 대통령은 그간의 경제성장 성과를 바탕으로 이슬람 종교 지도자 출신인 마루프 아민과의 연대를 통해 2019년 4월 재선에 성공하였음. 이에 따라 그동안의 인프라 확충을 통한 경제성장 기초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한편, 제반 제도와 사회정책 등이 보수화되는 과정에서 사회적 혼란이 초래되고, 민주주의가 퇴행할 우려 역시 제기되고 있음.
- 향후 정책 당국의 코로나19 대응, 인프라 확충, 실질적인 민주주의 실현이 인도네시아의 경제성장 및 국가신용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